

“야권 신당 세력, 모든 기득권 버리고 제3지대에서 통합해야”

신당 주자 인터뷰 ③ 박주선

지난 4일 국회 교문위원장에서 만난 박주선 의원은 야권 재편 국면에서 신당 추진 세력들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야권 신당 세력들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3지대에 모여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 야권 재편을 통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점차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며 신당 세력들이 가을같이에서 논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알 하나라도 챙기려는 농부의 심정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가운데 최초로 탈당, 야권 재편의 물꼬를 텃던 박 의원이 신당 세력의 통합이라는 난제를 풀어내면서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의 또 다른 페이지를 채워갈 것인지를 주목된다.

박주선은 누구?

사시 수석 합격 ... DJ정부 靑 법무비서관

‘4번 구속, 4번 무죄’ 파란만장 인생역정

박주선 의원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은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요약된다. 때문에 그에겐 ‘오복이’, ‘불사조’라는 별명도 붙었다.

1949년 보성에서 태어난 박 의원은 달걀 행상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광주고를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그는 1974년 제16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대검 수사기획관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15대 총선을 앞두고는 ‘DJ 비자금’ 사건의 수사 유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나와 함께 역사를 쓸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의 ‘호남의 미래 인제’였지만, 1999년 일명 ‘오로비 사건’에 휘말리면서 투옥되는 시련을 맞았다. 결국, 무죄로 풀려난 그는 16대 총선 때 화순·보성에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되며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하지만, 16대 국회 때 ‘나라중금 사건’(2003년)과 ‘현대 비자금 사건’(2004년)에 연루돼 2번의 옥고를 치른 뒤 또다시 무죄를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은 2004년 이를 악물고 17대 총선(고흥·보성)에 옥중 출마했으나 분투를 삼켜야 했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나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광주 동구로 지역구를 옮겨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련은 또다시 그를 찾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당시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4번째 구속된 것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동장 자살’ 사건이 빌미가 됐다. 하지만, 결국 대법에서 구속 사유가 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다만 동장 모임에서 지지성 발언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상 초유의 ‘4번 구속 4번 무죄’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제 박 의원은 야권 재편을 위해 탈당을 감행하고 통합신당 창당이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가 수많은 시련을 이긴 인생처럼 정치적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이 지지부진하다. 독자적 신당 창당에 나서나.

▲아직까지 신당 세력 간의 통합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다. 일단 10일 창당 발기인 대회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까지 창당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8월까지 신당 통합 연석회의 등 가시적 조치가 성사된다면 신당 창당 작업을 마칠 수 있다.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신당 세력의 통합은 야권재편과 총선 승리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패권과 기득권을 놓지 않고 망하는 길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은 신당 추진 진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신당 세력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급급,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동안 통합 신당 추진을 위해 많은 인사들을 만났는데 성과는 있는지.

▲안철수 의원을 비롯,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지사, 김민석 위원장 등 신당 추진 인사들은 물론 김한길·박지원 의원, 권도갑·정대철 고문, 정동영 전 장관 등을 만났다. 모두 신당 세력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당 세력 통합 방식을 제시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신당 추진 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3지대에서 통합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당 대당 통합은 신당의 주도권과 공천 등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빚을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일각에서는 호남의 신당 세력의 우선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원 샷 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인긴 하나 호남의 신당 세력이 우선 합치고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에 나서는 ‘투 샷 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천정배 의원은 물론 박준영 전 지사와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라도 호남의 신당 세력들이 통합을 이뤘다면 야권 재편 판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쉽다.

—안철수 신당 바람이 거세다.

▲현실적으로 안철수 신당이 정치적 세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안철수의 원에게 통합 신당 창당의 책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톨이라도 챙기려는 농부의 심정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오만과 자만이 스며들면 민심은 떠나버린다. 호남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권 재편의 흐름을 조망한다면.

▲위력적 바람이 일고 있지만 아직 태풍 급은 아니다. 현재의 흐름에 안주해서는 안



다당제 구도는 호남정치에 새 길 제시

신당 세력 통합되면 제1야당 우뚝설 것

호남 권익 당당하게 대변해 정치 복원

된다. 야권 세력들이 힘을 모아 통합 신당을 창당, 야권 재편의 태풍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 민심의 참여와 결집을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총선 연대는 없나.

▲분열하면 여권에 어부지리를 준다는 것은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구도와 독재 타도 시대의 논리다. 역설적으로 과거 총선에서 야권이 지지됐었다. 대선에서는 연대를 통해 ‘일대 일’ 구도를 만들고 공동 정부 구성도 할 수 있다.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는 다르다. 통합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없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특히, 다당제 구도는 호남 정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다당제가 호남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당제를 거론하면 호남 민심의 분열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호남 정치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대립적 구도의 양당제에서는 구조적으로 호남 민심의 선택 폭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다당제의 정치 구도가 형성된다면 경쟁을 통한 호남의 정치 발전은 물론 호남의 차별도 막아 내면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야권 재편을 통한 호남 정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호남의 권익을 정직하고 당당하게 대변하는 자립적 정치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더 이상 호남이 친노 패권주의 세력에 의한 ‘개혁의 대상’이나 ‘표의 인질’이 되거나 ‘정치적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 민생·민주·인권·평화라는 호남의 가치를 실현하고 호남 차별 구조 타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호남정치복원이다. 호남 정권이 토대가 되고 호남 민심이 실현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 민심이 야권 재편의 동력이지만 호남 정치권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호남정치복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야권재편에 나서고 있으나 안철수 신당 바람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아쉽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 호남정치복원을 위한 호남 민심의 관심과 지지도 필요하다.

—원역 국회의원의 교체를 바라는 지역 민심의 요구가 높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열린우리당 이후 분열과 갈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던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광주의 교체 욕구가 높은 것은 정치적 개혁 성향이 강한 지역적 특성도 반영됐다고 본다.

—새정치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인제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퇴진 등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되지 않는 한 백악이 무효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번 총선은 친노 패권주의 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청산하고 정리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4월 총선을 전망한다면.

▲신당 세력이 모두 모이는 통합 신당이 창당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고 새누리당과 맞설 수 있는 제1야당이냐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다. 하지만 통합 신당 창당 과정에서 기득권을 놓고 갈등과 반목이 보이면 국민적 지지는 하루아침에 불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뉴 DJ 등등 등 세대교체 여론도 강하다.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 신인 영입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장청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참신함과 경륜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보나.

▲다들 어렵게 얘기하는데 국민이 편안하게 하는 정치,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것보다 명료한 것이 있겠는가.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보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덕의 소치로 호남 민심의 기대와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뜻하지 않은 운영적 약제가 겹치면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야권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통해 호남 정치를 복원, 지역민의 성원에 부응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88-3005

2016 화천산천어축제

2016. 1. 9 SAT - 31 SUN 강원도 화천군 일원

산천어축제를 만나면 행운이 평평!!

산천어축제 빅 이벤트
화천복불복, 화천사랑, 맨손잡기, 예약·현장낚시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arafestival.com)를 참고하세요!

CNN이 선정한 세계겨울 7대 불가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

세계 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

WELCOME TO HWACHAEON

선등거리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